무주 맛·멋·정 뽐내다

반딧불축제와 함께 하는 마을로 가는 '가을' 축제
27일부터 9월 4일까지 5개 읍면 14개 마을 참여

무주군은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가 열리는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마을로 가는 '가을' 축제' 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가을축제는 5개 읍면에서 14개 마을이 참여해 맛, 멋, 정을 뽐낼 예정으로 "털보아저씨의 변신"을 준비 중인 무주읍 전도마을에서는 어죽을 먹으면서 복숭아 따서 맛보기와 복숭아 쨈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그곳에서의 휴! 10승지 마을여행"을 테마로 하는 무풍면 승지마을에서는 산야초비빔밥 등 야생 웰빙 음식을 먹으면서 마을농장 돌아보기, 트래킹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뱃놀이 하러 가자' 를 테마로 하는 설천면 호롱불마을(어죽, 비빔밥)에서는 꽃마차 투어와 뗏목, 카누 체험을, 피톤치드향 가득한 싱싱먹거리 보따리를 준비 중인 삼도봉마을(산채들깨비빔밥, 올갱이국밥, 야생쌈 정식)에서는 옛길걷기와 계곡물놀이, 들꽃압화, 블루베리 따기를 해볼 수 있다. '반디도인과 함께 하는 에너지 팡팡' 진평마을에서는 호호할머니의 맛있는 요리학교와 힐링마사지, 대나무 슬라이딩 푸드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대평마을에서는 '나는 야생인이다' 를 주제로 곤충요리만들기와 자연 속 야영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안성면 낙화권역(어머니 밥상)에서는 '덕유 낙화 가을여행' 을 테마로 풍등날리기와 서바이벌 게임, 래프팅 등을, 중산마을(바비큐, 시골밥상)에서는 '들고 튀어라' 를 테마로 옥수수 따기와 미꾸라지 잡기, 논두렁 운동회 등을, 진원마을(수제비 끓여먹기)에서는 '킹콩의 매운 맛을 봐라!' 를 테마로 고추장 만들기와 구천동 생태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죽장마을(오분도밥)에서는 '잘 먹고 잘 놀아보세!' 를 테마로 옛 밥상 오분도밥과 솔방울 가습기 만들기, 대나무 물총 만들기 등을 즐겨 볼 수 있다.

'어머니의 부뚜막 체험' 을 준비한 적상면 치목마을에서는 솥뚜껑에 부침개 구워먹기와 삼베체험 등이 가능하다. '오늘은 내가 일등 농부다!' 괴목마을에서는 제철 농산물 수확과 산야초 효소 만들기를 해볼 수 있으며, '달달칙칙 마을여행' 초리마을(칡 칼국수)에서는 칡떡 만들기와 마을 8경 소풍을 즐겨볼 수 있다. '느림으로 치유하는 적상산 하늘 길 정원' 내창마을(산채정식)에서는 치즈피자 만들기와 산양 젖 짜기, 먹이주기 등을 해볼 수 있다.

무주반딧불축제 관계자는 "무주반딧불축제에 마을로 가는 축제를 접목시키면서 축제장을 지역 전체로 확대시키고 주민들이 직접 무주의 잠재 자원을 제대로 알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지난 반딧불축제에 이어 봄, 여름축제를 연달아 개최하며 참가마을 주민들의 손님맞이 마음가짐과 노하우도 많아 달라졌고 무엇보다도 참가의사를 밝히고 있는 마을들이 많아지면서 다양성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마을로 가는 축제는 제19회 무주반딧불축제에서 처음 시작돼 연중 축제로 이어가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을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마을공동체의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돼 주민들과 관광객들 모두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관련 문의 __ 군 농촌관광 담당(063-320-2767)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풍원미 고구마 '호평'

식감 좋고 유리당 함량 높아

진안군은 고구마 신품종 보급을 위해 당도 높고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풍원미' 를 지역에 적응해 본 결과 농가와 소비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풍원미 고구마는 육색은 담주황색이며, 육질은 분질(밤)고구마와 점질(물)고구마의 중간정도로 식감이 좋으며 쪄낸 풍원미의 유리당 총 함량은 31.6g로 대비 품종인 '율미' 에 비해 21% 높고, 베타카로틴 함량은 100g당 9.1mg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5월에 식재하는 고구마를 4월에 식재한 결과 늦서리가 많은 진안고원 기후에 적응이 잘 되었고 특히 올해 같은 가뭄에도 다른 품종보다 생육이 우수 하였다.

또한 뿌리혹선충과 덩굴쪼김병에 강하여 수확량도 25% 증수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주시의 한 소비자 조모씨(전주시 서서학동)는 "용담을 지나던 중 인근에서 판매하는 풍원미 고구마를 구매하게 되었다"며 "여름에는 보통 밤고구마를 먹었는데 이렇게 색깔도 좋고 단맛도 있고 또 촉촉하여 목이 메이지 않아 먹기 좋다"고 말했다.

서영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도가 높고 기능성분인 베타카로틴 함량이 많은 '풍원미' 는 저온과 가뭄에 강해 진안고원 기후에 적합하여 내년에는 수요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구마 종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와일드푸드축제 음식발표회 개최

D-30 '깃발 퍼포먼스' 도

2016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D-30일을 맞아 와일드푸드 축제 음식을 미리 맛보는 '음식 발표회' 가 열렸다.

완주군은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와일드푸드축제 음식을 미리 선보이는 '2016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음식발표회' 를 개최했다.

이번 음식발표회에서는 표고, 양파를 이용해 만든 용진읍의 표고볼, 이서면의 배를 이용해 만든 배식혜, 구이면의 간장 떡볶이, 동상면의 짚신빵 등 전 연령대에서 즐겨 찾을 수 있는 완주지역의 로컬푸드를 활용한 건강음식이 개발되어 사람들의 눈길을 모았다.

또한 올해 축제음식 준비과정 및 관광객을 맞이하는 자세, 음식이야기 등 주민이 직접 발표하는 자리도 진행됐다.

완주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석대 산학협력단 컨설팅을 통해 읍면별로 축제음식을 결정하고, 식재료 재배, 레시피에 따른 음식 표준화 등 대표밥상의 품질고급화로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음식발표회에서는 와일드푸드축제 성공개최를 다짐하는 '2016 완주와일드푸드축제 D-30 깃발 퍼포먼스' 도 함께 개최되었으며, 남은기간 최선을 다해 준비하기로 뜻을 모았다.

완주=이중복 기자

로컬플러스

진안군, 축사시설 현대화 추진

진안군은 FTA 체결 등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화된 축사시설 개선과 자동화 축산설비 등을 지원하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에 지원해 축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축사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축산분뇨 악취 등의 민원을 사전 방지하는 등 안정적인 축산기반 조성과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그동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개년에 걸쳐 총 12억원을 투입하여 17농가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8농가에 보조 2억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무단점유 임시특례제 운영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주거용·종교용 시설부지, 농지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의 지목을 현실에 맞게 바꾸어 대부하여 주는 임시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시특례 제도는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특례대상 용도별 적용기준은 △주거용 시설부지는 특별시·광역시는 5백 제곱미터 이하, 그 외 지역은 1천 제곱미터 이하 △종교용 시설부지는 2천 제곱미터 이하 △농지는 특별시·광역시는 5천 제곱미터 이하, 그 외 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하이다.

임시특례제도 적용을 받으려면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 신고서' 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해당자는 신고서 제출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국유림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행정3.0 구현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마을사업, 우리 손으로 편성한다

읍면 주민참여예산위 개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중점

완주군은 마을사업 등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2017년도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확정을 위해 지난 23일부터 삼례읍을 시작으로 사업제안자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2017년 예산편성을 위한 읍면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13개 읍면을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이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68억 5,000만원에 이르는 2017년도 완주군 주민참여예산 반영 대상사업이 결정된다.

특히 이번 주민참여예산은 지역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을단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생활복지와 직결되는 생활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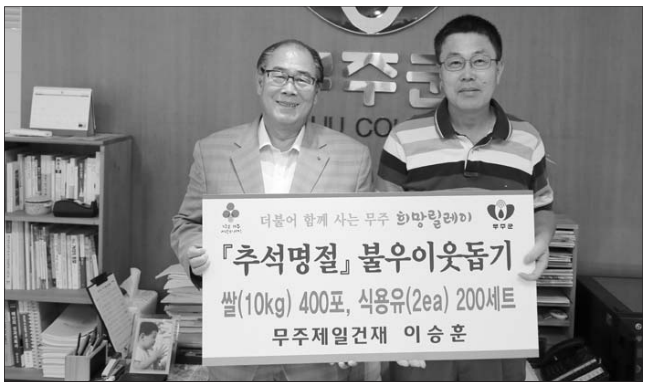
이번 읍면주민참여예산 심의회를 통과한 제안사업은 추진부서의 타당성 검토 후 최종적으로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주민 스스로 예산을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자치역량을 키우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에게 실질적인 필요예산을 반영해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5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638건 383억 6,200만원 상당의 주민제안사업을 신청 받았으며, 엄격한 1차 심의를 통과한 431건 134억 1,000만원 규모의 제안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주민이 행정과 함께 예산반영에 참여하고 제안사업장을 현장점검 하는 읍면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는 ▲23일 삼례읍·이서면 ▲24일 봉동읍 ▲25일 용진읍 ▲31일 비봉면·고산면 ▲9월 1일 화산면·경천면 ▲5일 상관면·운주면 ▲6일 동상면, 소양면 ▲9일 구이면 일정으로 진행된다.

/완주=이중복 기자



무주제일건재, 1천만원 상당 쌀·식용유 기탁

무주군은 무주제일건재 이승훈 대표가 지난 23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쌀(10kg) 400포대와 식용유(2개 짜리) 200세트(1천만원 상당)를 기탁해와 화제가 되고 있다.

명절이면 이웃돕기를 통해 더불어 함께사는 무주 실현에 동참해 나가고 있는 이승훈 대표는 "추석명절을 앞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며 "지역에서 얻은 수익을 지역주민들을 위해 환원한다는 기쁨이 삶의 동력이 된다"고 말했다.

군은 이날 기증받은 물품을 모두 6개 읍면에 배부했으며 추석 전에 각 읍면별로 저소득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진장소방서, 전국단위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참여 훈련 실시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는 24일 오후2시 관내 상습 교통정체구간·전통시장 등에서 일제히 전국단위 소방차 길터주기 국민 참여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제402차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과 연계한 것으로, 훈련구간은 무진장소방서 관내 혼잡한 주요도로를 자체적으로 선정했다. 119출동지령에 따라 펌프차, 구조·구급차 등 3~4대가 실제로 사이렌을 켜고 출동하면서 군민들의 자발적인 양보를 위한 훈련을 벌였다.

소방차가 지나가면 안내에 따라 일반통행로 및 편도 1차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하면 된다. 일시정지, 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2차로(긴급차량 1차로 통행)로,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1, 3차로로 양보(긴급차량 2차로 통행)한다. 횡단보도의 보행자는 소방차가 지나갈 때 까지 잠시 멈추면 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협의회 회원 역량강화 교육

장수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원)는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난 9일부터 23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주체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장수군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사업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농촌체험관광과 관련해 마을, 농장, 소규모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관광자원 기초조사 후 19개소를 선정해 지난 7월에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종전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촌체험관광의 한계 극복하고 지역특색을 반영하는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등 사업주체간 서로 win-win 하는 실질적인 관광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교육기간 장수군 농촌관광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경쟁력 강화방안, 장수군 관광자원 활용방안과 관광객 상대 서비스 제공방법 및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를 보다 활성화하고 장수군의 관광자원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수군을 찾는 많은 도시민들이 만족하고 다시 찾는 활기 넘치는 장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 산서파출소, 차량 내 자살기도자 구조

심야시간에 "아버지 이모(45, 산서면 거주)씨가 차를 타고 나가서 휴대전화로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왔다."며 신고자가 산서파출소를 방문하여 신고함에 따라 장수경찰서(서장 윤중섭) 산서파출소에서는 신고접수 즉시 대상자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 및 운행하는 차량의 알리미 등록 등 신속히 동선을 파악하는 한편, 신고자에게 대상자와 전화 통화하도록 하여 시간을 벌면서 대상자 설득 및 위치를 알아내도록 했으나 위치도 모르고 오지 말라며 번개탄을 피워 놓았다는 답변 등 긴박한 상황이 계속됐다.

전화위치 추적 결과 산서면 소재 영월암 인근으로 파악, 여청계, 강력팀, 상황실장 및 타격대 등 출동 부근을 세밀히 수색을 실시하다.

마침내 24일 새벽 1시 50경 관내 지리에 밝은 산서파출소 정일용 경위와 이강필 경사가 칠흑 같은 어둠속의 야산 속에서 대상자의 차량을 발견하였고 차량내에 번개탄을 피워놓아 연기가 가득한 차량 내에서 대상자를 발견 구조했다.

장수경찰은 평소 각종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을 꾸준히 실시해 왔었는바, 이러한 절박한 상황속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잘하여 자칫 시간이 경과되면 잃을 뻔한 한 생명을 구한 것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고원 마이산 고추시장 자매결연지 부녀회 초청행사

진안군은 24일 고품질 진안고추 직거래를 위해 운영하는 '진안고원 마이산 고추시장' 에 자매결연지 부녀회를 초청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방문한 부녀회는 부산시 북구 새마을부녀회로 회원 40명이 고추시장을 방문하여 진안의 고품질 고추를 구매하고 부귀김치공장을 방문하여 진안산 고춧가루 양념을 이용한 김치담그기 체험도 실시했다.

부녀회원들은 "자매결연지를 방문하여 품질 좋은 농산물도 구매하고 마이산도 둘러볼 기회가 되어 좋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산물 직거래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